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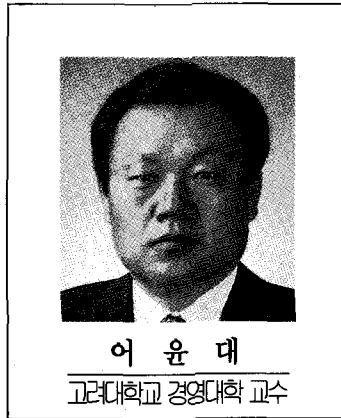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시대의 기업 경영

1993년 12월 GATT의 UR 협상이 타결되고 WTO 체제가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또한 EU, NAFTA 등 지역 블록을 통한 선진제국의 각국간 시장 결합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도 시장개방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들 국가의 경제가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즉, 세계경제가 지향하는 재편 방향은 '국경없는 세계와 무국경 국제경쟁의 실현'이며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경제시대'(era of globalization)이다.

경제의 글로벌화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각국간 경제 마찰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글로벌한 통합이 진전되는 가운데 '정치적 틀'로서는 여전히 19세기적인 국민 국가(nation-state)의 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에 수반하여 국경을 초월한 무역, 투자, 기술의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법률, 정책 당국의 각종 시책, 시장구조 차이 및 경쟁제한적인 기업관행 등이 이 국제적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통상 마찰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호된 국내시장에서 안주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진취적이고 해외 지향적인 기업에게는 좀 더 자유로워진 세계시장



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 환경 변화의 내용과 이에 대처해야 할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을 검토해 본다.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UR에 따른 기업 행동규범의 변화와 WTO 출범의 의의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통상장관 회의에서 UR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이 공식 선언되었다. 1947년에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기초하여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제무역을 관장해왔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UR에 기초한 새로운 무역질서, WTO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UR타결에 의한 변화는 국제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경쟁의 공정성 확보는 서로 다른 경제환경을 가진 기업들간의 국제 경쟁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UR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국 소비자의 희생 위에 혹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해외 시장에서 인위적인 경쟁우위를 누리던 기업들은 이러한 시혜(施惠)를 더 이상 향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기업들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경쟁을 헤쳐나가야 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경쟁우위 창출만이 향후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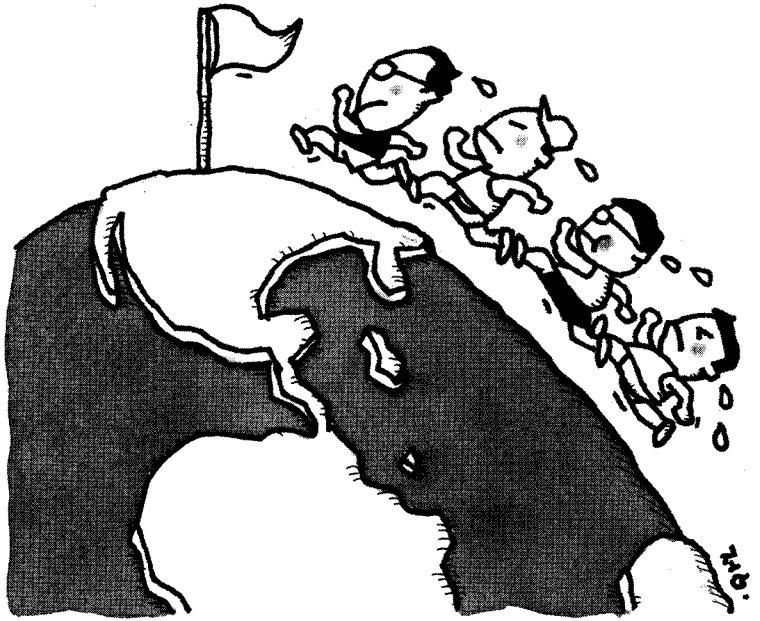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변화는 시장 범위의 확대이다. 기존의 보호된 국내시장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간의 교역을 통한 시장기회를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주는데, 우선 그동안 국내시장에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해 오던 기업들은 시야를 해외로 넓혀 더욱 많은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단일한 자세로 국내시장에만 계속 집착하는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침투로 인하여 수익감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존 그 자체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결국,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을 통한 무역 기회의 확대는 각국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한편, 이 같은 사업기회를 제대로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커다란 부담을 주는 도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UR에 따른 또 다른 변화는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의사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시켰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GATT체제에서는 분쟁의 결정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력이 없는 의결 기구로서 만족하였다.

그러나 UR은 통상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하고 패널 제도, 패널 보고서의 자동 채택을 의미하는 역(逆)만장일치제(inverted consensus)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각종 무역규제조치를 제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확립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결국, UR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경제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반대로 국제경쟁으로부터 분리된 채 독점 이윤을 누릴 수 있는 무풍지대의 국내사업 활동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사업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당위

명제로서 강요받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없이도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경쟁력의 배양과 경쟁우위의 지속적인 재창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역주의의 확산

세계경제가 통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블럭화·지역화를 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58년 관세동맹으로 출발한 EC의 발전된 형태로서, 1993년 역내 단일시장을 완성하였다. 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 등의 모든 생산물과 자본, 기술,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의 역내 이동이 자유화되었다.

또한 1999년까지 역내 중앙은행의 설립 및 단일 통화의 창출 등을 위한 경제, 통화동맹을 계획함으로써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1995년 1월부터 역내 국간 관세를 철폐하는 등 지역화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우위요소인 자본과 기술을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연합과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의 지역화 경향과는 달리 아시아국가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지역화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선발개도국들이 그 동안 무역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미국이나 유럽시장을 제외한 지역경제 불력화는 도리어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무역지역화는 단순한 아시아 지역만의 불력화보다는 미국의 참가가 전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기존의 다자간 합의에 의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아시아 뿐만 아니라 대양주와 북미까지 모두 포함한 APEC이 1989년 창설되었다. 현재 17개국으로 구성

된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천명하면서 지역협정의 폐쇄성을 견제하고 지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자간 협정보다 한발 더 나아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현행 국제규범인 WTO체제만으로는 진정한 자유, 공정무역을 달성하기에 아직 미흡하다는 사고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무엇보다도 불력화·지역화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역외국을 차별하게 되므로 자유무역 확대의 측면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협력체가 법적으로는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더라도 역내국에 대한 특혜적 성격을 갖고 있어 역내국과 역외국 간의 경쟁우위 요소의 차등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의 성숙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추진력 중 하나는 기술 혁신, 특히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그 토대가 되는 전자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연쇄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른바 정보산업으로 통칭되는 컴퓨터, 통신기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산업은 높은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전자산업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21세기를 주도할 대표적인 유망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사회전반에서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정보화가 가져오는 중요한 변화로서 지역적 분산성의 해소, 생산의 시간효율성 제고, 네트워크 조직의 정착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온 조직 측면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네트워크의 정착이다.

그 동안 각 생산단위들이 부분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했다면 정보화의 진전은 단위들간의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계에 의한 관계의 효율성 또는 전체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조직으로서 기업조직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에 따라 네트워크 조직이 발전하게 되자 기업들은 국제사업활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보부족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현지법인들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과 조직을 재조정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 조직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회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정책의 세계적 규범화 추세

기업활동의 전세계적 차원에서 최적입지 진출과 함께 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무제한 허용되는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되면서 국제 무역 규범의 대상이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정책 및 기업관행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조건과 공통의 규칙하에 경쟁해야 한다는 경쟁조건의 평등주의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이 통상협상의 필연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제공한다. 이에 경쟁정책분야가 통상마찰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국에 대한 일례로 미국은 통신, 자동차, 농산물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시장개방의 공세를 취하고 있으며 경쟁정책라운드(CR ; Competition Round)의 예비단계로 볼 수 있는 불공정 경쟁관행분야의 문제국가로 한국을 지목하였다. 또한 일본도 「95년도 불공정 무역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에 이은 두번째 불공정무역 상대국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1947년에서 1948년에 걸쳐 입안된 하바나(Havana)현장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경쟁정책의 세계적 규범화는 1992년 2월의 Davos 회의(World Economic Forum)에서 GATT를 통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수렴이 제안되어, 국제적 경쟁규칙과 그 집행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무역법에만 의존하여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경쟁정책 원칙의 국제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게다가 1994년 4월 마라케시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시 경쟁정책이 WTO의 통상규칙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앞으로 경쟁라운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UNCTAD, OECD 등에서도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경쟁정책의 국제적 규범화는 향후 경쟁정책의 적용이 느슨한 국가의 경쟁규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간에 서로 다른 경쟁정책이 초래하는 경쟁조건의 차이를 제거하여 자유·공정 경쟁을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하여 외국상품 및 기업이 수입국 시장에서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여 시장접근의 유효성을 보장하며, 수출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 특히 카르텔을 규제하여 국제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불공정수입에 대항하는 반덤핑 조치가 국내 경쟁자의 보호 대신 경쟁 자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이 전환될 것이다.

경쟁정책의 국제적 규범화 추세는 무역·산업정책 우선주의적인 한국의 경제구조를 무역·산업·경쟁정책 조화추구적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강화의 최선책이 경쟁촉진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더불어 경쟁을 촉진하려면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경기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효율 및 생산성 향상의 계기 마련과 기업경쟁력의 재고가 이루어질 것이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하에서 경쟁력을 향유하던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 기업의 대응 경영전략

선진 기업의 세계화 전략

위에서 논의한 세계환경의 변화, 즉 글로벌경제시대를 맞아 모든 기업들은 각 지역별 특수성에 적응하기 위한 현지화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기업전체의 자원을 최적으로 조달하고 활용하기 위한 통합화라는 두 개의 상반된 전략적 선택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제 기업은 개별지역의 요구

나 특성에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범세계적 규모에서 조달, 생산, 유통 및 판매 등 각 가치활동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한 경영활동의 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는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화전략의 특징은 현지화를 기반으로 하되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의식하며 현지화의 연장선 상에서 각 국가에 존재하는 여러 활동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

현지화는 크게 사람, 부품/원재료, 금융 등 주요 경영자원의 현지조달을 의미하는 자원의 현지화와 이들 자원의 처리와 배분을 결정하는 연구개발의 현지화 및 관리의 현지화를 모두 포함하며 보통 일방의 현지화는 타방의 현지화를 촉진하게 된다.

그런데 현지화전략은 현지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지역이나 국가만을 대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최적화를 요구하는 글로벌화의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 국가내의 경영활동을 하나의 연관된 시스템으로 조정 및 통합함으로써 전체 기업 전체차원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위 통합화 전략이 요구되게 된다. 세계

기업은 세계 전체를 단일한 시장으로 보고,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며, 가치사슬(value chain)의 배치와 조정을 통하여 범세계적 생산입지를 선정하고, 통합화된 마케팅 활동, 경쟁적 행동 등을 통하여 통합화하는 세계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세계 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시장개방과 자유·공정 경쟁압력으로 인한 국내·외 경쟁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세계 경쟁의 흐름 속에서 외국에 진출한 기업들 뿐 아니라 국내에서 정책적 보호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되는 시대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화 되어가는 세계경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는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후발기업으로 일찍이 세계화에 매진하여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난 기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뛰어난 경쟁우위를 갖고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는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시장에서 공격적이고 폭넓은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

계적인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어느 외국기업과 경쟁해도 이겨낼 수 있는, 하멜 교수와 프라하라드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핵심능력(core competence)을 확보해야 한다.

요컨대 세계 적소에 진출하여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경쟁자와 겨룸으로써 적진이라는 불리한 환경에 처하여도 경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국내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

한국 기업의 세계화 현황과 과제

한국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보면 해외생산비중이 초일류 다국적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198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GNP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진한 상태이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위주의 경영활동에서 벗어나 해외진출을 통한 적극적인 세계화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지국 저임금 활용, 선진국 수입규제 회피와 같은 평면

적인 목적을 위해 주로 해외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지역과 업종도 북미, 동남아시아와 섬유·의복, 조립금속 등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노동 집약적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전략적 제휴 측면을 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의 일부 산업에서 선진국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위험 분산, 신규시장의 개척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도 세계화 추세 속에서 외국기업과 제휴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기업 특유의 경쟁우위요소가 부족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국제전략적 제휴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제휴를 단순한 기술도입 수단으로만 간주하여 조달, 생산, 판매 등 광범위한 경영 제휴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체제의 구축 측면에서 보면 경영층의 현지화 노력 미흡과 분사 중심적인 현지법인 의사 결정, 국제 전문인력 부족과 노무관리의 미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진정한 현지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화의 장점 또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 기업의 경영과제로 대두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자. 향후 세계화 전략은 수출규제의 회피, 낮은 생산비의 활용 등의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보다 장래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현지시장의 철저한 공략, 기술개발거점의 국제화, 경영의 국제화를 통하여 국제적인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임금을 목적으로 한 해외직접투자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현지시장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판매, 서비스 활동 등 하류 가치활동(down-stream activities)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필요한 전략은 소비자에 접근한다는 마케팅적 사고로부터 출발하여 해외시장조사, 해외유통망 확보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주문자생산방식(OEM)수출 일변도에서 고유상표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전략적 제휴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경쟁격화에 따라 세계산업이 몇몇 강력한 주도기업과 이들과 관련된 주변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강한 제휴군에 합류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만다.

따라서 국내기업으로서도 강력한 제휴군에 합류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휴전략 추진이 불가피하여, 국제기업들의 배타적 제휴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내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제휴와 전략적 사고로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세계화는 기업활동을 세계시장에 배치하는데 있어 네트워크화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가·지역별로 시장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세계화하는 기업은 가치활동의 대부분을 공략대상 국가·지역마다에 모두 '분산'시켜 독립 운영하게 된다.

반면,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추구기업은 대부분의 가치활동을 본국에 '집중'하게 된다. 한편 세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가치 활동별로 효율성에 의거 '집중'과 '분산'을 적절히 혼합하여 해외 거점을 구축하고 이들 거점간 조정을 통하여 세계의 경쟁자에 대응·경쟁할 수 있다.

결국 세계전략의 중요한 특징은 기업의 분산된 가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전세계에 배치 및 조정한다는 점이며, 현지국 지향적이거나 본국지향적 시각이 아니라 전세계의 경영활동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현지 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경영목표의 명확화 및 중장기적 경영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며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또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현지로의 권한 위양, 관리직에의 현지인 채용등

의 현지화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본사와 현지 법인간의 생산관리 및 경영관리의 공유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측면에서 국제적인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위험 관리, 적절한 현지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재무측면의 현지화와 이의 전사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결론

경제의 글로벌화는 세계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명백한 추세로 기업들의 국제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가 통합화, 개방화되어 감에 따라 국경은 더이상 기업의 자유로운 국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가 단일의 활동영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간의 상이한 특

성에 기인한 경쟁제도 차이가 점차 해소되면서 국제적인 기업활동이 추가적인 부담없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경쟁기업들이 단일화되는 세계시장, 세계고객과 만나게 되어 더욱 치열한 글로벌기업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기업의 글로벌화는 지금까지 한국기업이 취해온 시장 개방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국제화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쟁정책 논의가 미국 등 선진국 정부와 기업의 이해를 반영한다면 정부는 한국기업과 경제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세계적 다국적기업

들의 반(反)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방안,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독점력의 남용, 다국적기업들이 수직통합, 수직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함에 따라 초래되는 국내경쟁제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의 질과 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자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경쟁자의 본거지에서 잘 할 수 있어야 경쟁자가 내집 안마당에 들어와도 이를 여유있게 물리치고 계속기업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金準東,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資料 94-16, 1994. 12.
- 俞鎮守, 『競爭政策에 관한 國祭의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資料 93-15, 1993. 12.
- _____, 『UR 이후 競爭政策에 관한 國祭的 懸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資料 95-01, 1995. 4.
- 李光哲·李載裕·張允鍾, 『韓國企業의 世界化戰略: 그 課題와 方向』, 大韓商工會議所, 1994. 12.
- 李圭德·崔希先, 『市場支配的地位 濫用規制制度의 運用方向』, 『法經濟研究(II)』, 韓國開發研究院, 1994.
- 趙東成, 『韓國企業의 開放化 對應戰略』, 『韓國企業의 世界化戰略』, 韓國經濟戰略研究院, 開院記念 戰略 심포지움 資料, 1995. 7. 7.
- 池龍熙·李載裕·李掌魯·全龍昱·金榮坤, 『韓國企業의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한 國際네트워크 構築戰略』, 大韓商工會議所, 1994. 12.
- 洪裕洙, 『戰略의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研究 94-01, 1994. 1.
- 황재민, 『경쟁정책의 논의와 국제규범화』, 『월간 제일경제연구』, 1995. 6.
-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現況과 向後 展開方向』, 1993. 7.
- 한상준,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기업의 경영전략』, 『월간경제』, 대우경제연구소, 94. 12.
- Yip, George, 『Total Global Strategy : Managing for Worldwide Competitive Advantage』, Prentice Hall, 1992.